

임업경영학 개척한

金 樟 洙 박사

대담 / 朴 澤 奎 <건국대 이과대교수 / 본지 편집위원장>

“산 - 나무 - 인간의 조화” 평생 집념

평생 임업경영과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온 임학계의 원로 金樟洙(76세)박사는 34년간 봉직한 고려대를 1985년 정년퇴직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산 - 나무 - 인간의 조화라는 산림문화의 새로운 장을 연 김박사는 산림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는 국민의 의식개혁을 강조한다.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건 강하신 모습을 뵈게 되어 더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국민학교는 서울의 재동국민학교를 다녔는데 5학년때 모친께서 서울에서 못살겠다고 하셔서 고향인 전남 영암군 영암면 교동리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영암보통학교를 다녔어요. 엄친(金璠鎔)께서는 한성사범을 졸업하시고 영암에서 훈도를 하셨으며 기미독립운동에 가담하여 고향에 못 계시고 서울로 오셔서 이왕직 산하에서 가정교사를 지내 시기도 하셨어요. 서울시 의회 초대

장을 지내셨는데 교육을 비롯해서 매사에 매우 엄하신 분이셨어요.

당시 시골국민학교 출신으로 경기도 보(현재의 경기도)에 입학하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시 3개월 전에 상경하여 아버님께서 직접 저를 가르치셨어요. 교육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래 훌륭한 가정교사였다고 기억합니다. 당시 경기공립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는 어쨌든 평균 80점은 됐는데 아버님께서 만족스러운 성적을 얻지 못했다고 야단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경기 재학시절 공부밖에는 몰랐고 당시 친구로는 趙洸熙(전 국회의

원), 鄭用植(전 충남대공대학장)을 비롯하여 高興業, 金善集 등으로 1937년 졸업동기들입니다. 가회동에 오래 살았던 한옥은 제가 경기도보 3학년 시절에 엄친께서 지으신 집인데 여기서 어린시절을 보냈고 결혼 후에도 계속 가회동에 살았습니다.

경기거처 경도제대로 유학

■ 선생님께서는 수원농림전문학교를 거쳐 경도제대 농학부 임학과를 1943년에 졸업하셨는데 임학을 전공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으십니까?

서울법전을 들어가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으나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세상, 기술이라도 배우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여 수원 고농을 택했어요. 수의축산과를 졸업하였는데 당시 제국대학에 입학하려면 1고, 2고등을 거쳐야 하지만 수원농림전문이 관립전문학교여서 80점 이상으로 시험에만 합격하면 입학이 가능했어요. 입학과에 입학하였는데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과 더불어 임업연구의 외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였어요.

당시 입학과에는 10년 전 졸업생이 한 명 있었을 뿐 그 후에는 전무하였어요. 우리가 다닐 때는 한 과에 한국인 유학생이 1, 2명 정도 있었는데 趙光熙, 洪基熙, 金泰鳳 등이 학과는 달라도 함께 다닌 동료들이었어요. 전 서울대 교수였던 李鍾珍 박사는 1년 후배였지요.

졸업 후 1943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한국인으로는 드물게 강원도의 기수(技手)가 되었고 1945년 3월부터 9월까지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보성전문의 전신) 전임강사를 거쳐 이해 9월부터 1947년까지 수원농림전문(서울대 농대 전신)교수로 근무하였고 농림부로 와서 1947년부터 2년간 농림부 기좌(技佐)로 근무하였어요.

■ 선생님은 고려대에서 근무하시다 1985년에 정년 퇴임 하셔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1972년에 한국조경학회를 설립하셨고 한국임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를 통한 활동 이외에도 대학연구실, 임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임업정책, 임업경영에 관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았습니다. 임업에 온갖 정열을 바치신 외곽 임업인생의 철

학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 좋은 나라,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나무처럼 싱싱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과 인간의 조화, 환경보전, 생태계 보전 등이 국가적·국제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임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림에서 임는 혜택은 너무나 큼니다. 깨끗한 공기, 흡수기능, 토사유출 방지 등 산림자원은 국민의 자산이고 국력과도 직결되지요.

우리 국민들이 산림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연간 63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넓은 의미로 볼 때 산림의 공익차원에서 가치는 경제적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울창한 숲은 귀중한 임산자원이며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제공할뿐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인간의 심성을 부드럽게 해주고 삶에 찌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숲의 경제적 가치를 92년 임산물 생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8천

2백억원으로 산출하였으나 앞에서 지적한 대기정화, 물의 저장, 토사유출방지과 휴양공간 등 공익적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국민총생산(GNP)의 12%에 이르는 27조6천억원이나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산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경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업정책, 임업경영이 국가정책으로 반영되고 학문으로서 정립되고 임업현장에서의 운영관리에 과학적인 방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임업정책, 임업경영학을 계속 강의한 것도 이러한 신념에서였지요. 환경을 보전하는 칩경은 산에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고 나무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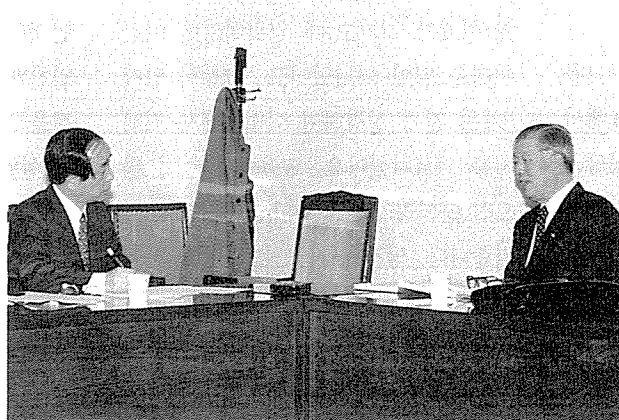
■ 선생님은 고려대인으로서의 금지도 대단하신데 고대와의 인연을 말씀해 주십시오.

34년간 고려대 교수로 봉직

대구 피난시절에 고려대에 이학부가 생기고 농과, 임과도 설립되었는데 이는 인촌선생님의 소망이었지요. 당시 농대는 농과와 임과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그동안 1천2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특히 고대 농대 학장시절 독일에서 7백60만마르크의 원조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한편 15명의 박사를 독일에서 교육시키고 교수 25명을 파견하여 고대 농대 발전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던 것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1979년 고려대에 식량개발특수대학원을 설립, 원



▲ 김박사(右)는 나무가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산림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는 국민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으로 취임하여 특수대학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일본인이 싫고, 관리가 되기도 싫고 특히 인촌선생과 업친과의 관계가 매우 깊었던 인연도 있어서 고대교수로서 34년을 봉직할 수 있었던 행운을 맞보았지요.

■ 선생님에 대해 전부터 이미 2천년대에는 석유 아닌 나무 위기가 온다고 경고하셨고 산림문화의 정착을 강조하시면서 산 - 나무 - 인간의 조화라는 새로운 단어를 창작하여 신문문단에 발표하셨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독일에서는 임업전공자, 임업학자, 임업종사자(관리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렵인가에서 특혜를 부여받고 임업을 하게 되면 젊어서도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요. 독일의 소위 검은 숲(Black forest)을 보면 느끼는 바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산림이 전 국토의 65%나 되는 산림국가이면서도 산림을 아직 큰 소득원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산림의 보존과 관리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명제이며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업하는 사람은 순진하고 자연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면이 특히 많지요. 특히 묘목을 심은 다음 한 그루의 어엿한 나무로 성장하는데 20~5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소요되는데 경제적인 이득보다 긴 안목에서 앞을 내다보는 혜안과 참을성을 지닌 것을 임업인들의 삶의 철학으로 보고 싶어요. 남이 안한 것, 후진양성. 이런 의미에서 임업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 선생님에 대한 동료들의 평은 “명문 대가의 후예답게 기골이 장대하고 소박한 심성에 성품마저 활달하고 대범하여 호인이기도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여 직언을 곧잘 하고 간언 또한 서슴치 않는 분이라서 간혹 오해를 사는 적도 있다. 명량, 활달한 성격을 칭송하고 직언을 잘하는 곧은 성품에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오래 사귀다보면 진국임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선친께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실 때는 옆자리에서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인내와 끈기로써 끝까지 효성을 다했다는 것은 선생님 주위의 분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10여년동안 시어른의 간호에 갖은 정성을 쏟은 사모님의 효성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합리적인 임업경영에 관한 이론에 못지않게 모범적인 가정경영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남2녀에 손자만 10여명

오랜 병환에 계셨던 선친에게 내 아내(李龍均여사)가 정말 잘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내에게 꼼짝 못하면서 지내지요. 경기여고를 졸업한 다음 서울 사범연수과(현 서울대 사대)를 졸업하고 1년 교직에 있다가 1943년에 결혼했어요. 몇년 전에 금혼이 지났으니 정말 감회가 깊어요. 아내는 요새 동양화에 심취해서 사군자를 비롯하여 새들을 화폭에 담고 있어요. 펍 만족스러운 생활을 함께 하고 있지요.

우리는 4형제이고 회사 사장, 치과 의사 등 직업이 각각인데 桂洙(외대 명예교수, 전 광복 50주년 기념사업회 위원장)도 이미 대학에서 정년을 맞이했지요. 마음을 비우고 살아서인지 또는 매사를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서 그랬는지 2남2녀의 자식들이 건강하게 자라

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게 대견스러워요.

장남 秉德(47세·고대 경영대졸, 광에서 사업)은 2남을 두었고(鏞熙 高2·晋熙 高1), 차남 秉國(44세·서울대 공대졸, MIT 박사, 로웰대 컴퓨터과 교수)은 딸 두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들 위로 장녀 秉淑(50세·이대 가정학과졸, 동대학원 졸업, 부군 徐連鎬, 서울대 문리대 물리과졸, 미국센트루이스대졸, 서독 슈투트가르트대 이학박사, 현 서울송문고교 교장)은 1남2녀(장남 淳根, 성균관대 경영학과 재학)를 두고 있고 차녀 秉玉(49세·이대 영문학과졸업, 부군 洪永洙 : 서울대 의대 졸, 신경정신과 전문의, 개업의)은 1남2녀(장남 峻根, 고대 의대 재학)가 있으며 친손자, 외손자 모두 10명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들이 티없이 맑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사회를 위한 봉사에 더 큰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 끝으로 산림경영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조림은 건강이다’라는 사고를 바탕으로 선진국의 조림정책을 참고하여 산림의 효율성 제고, 식재보다는 조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양적 조림에서 질적 조림으로, 그리고 시야를 넓혀서 수종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나아가 국토의 특수성도 살려 자연보호와 조림사상의 정립과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특히 산림의 가치를 올바르게 깨닫는 국민 의식의 전환을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는 휴양과 산책을 할 수 있는 산림을 강조하십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푸르른 산림처럼 건강하시고 사모님과 함께 따뜻한 가정에서 보람된 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7